

전남대병원 '사랑나눔봉사단' 신안 증도 의료봉사

“안 쉰신데가 없제. 온 삭신이 다 쭈서서 인자 농사도 못 짓것당께. 눈이 잘 보인디, 좀 보이게 해줬으면 쓰겼소.”
11일 오후 링겔 영양제를 맞기 위해 신안 증도면 증도초교 체육관 한 켠에 누운 이금실(87) 할머니. 최근 점점 안 보이는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배내장을 의심했다. 정상용(88) 할아버지는 허벅지 통증으로 일어서기 어렵다며 재활의학과를

찾았다. 정 할아버지를 높이고, 조심스럽게 온 몸을 주무르며 통증 원인을 찾던 송민근(33) 전문의는 허리 쪽 신경이 눌린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의자 짚고 일어나기’ 등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을 소개했다. 송 전문의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대부분은 근골격계 통증을 가지고 계신다”며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 어촌에 ‘공공의료 핫살’

재활의학·내과·안과 등 주민 수백여명 종합검진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현실화 고민하겠다”

마치 전남대병원을 축소해 옮겨놓은 듯한 증도초교 체육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올 초 발족한 전남대병원 ‘사랑나눔봉사단(이하 봉사단)’이 이날 신안 증도에서 국내 첫 의료봉사에 나섰다 때문이다. 과거 개별 실과 중심으로 진행됐던 의료봉사를 종합·체계화해 의료봉사 수준을 업그레이드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09년 기존 사회사업팀을 공공의료사업실로 확대개편한 뒤 창립 106주년인 올해 봉사단을 구성함으로써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30분 전남대병원을 출발한 봉사단은 8시30분 체육관에 도착해 재활의학과·마취통증과, 내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의 부스와 간이침상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맞았다. 전문의, 간호사·물리치료사, 약사,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등 모두 30여 명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면접·안내·진료·처방했다. 종합병원의 진료체계를 섬세하게 구현한 것이다. 박윤옥 전남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 팀장은 “전남대병원은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신안 증도에서 첫 의료봉사에 나선 전남대병원 ‘사랑나눔 의료봉사단’이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봉사단은 재활의학과, 내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직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앞으로 좀 더 수요자 중심의 봉사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전 부산에서 귀촌한 전대면(45·정유경(38) 부부는 해찬(7)·수연(4)·예린(11개월)을 데리고 체육관 곳곳을 들락거렸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전문의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에서다. 전씨는 “섬에서 무엇보다 힘든 것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목포

까지 1시간 30분을 운전해 가야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9일 양파농사를 짓는 아흔의 아버지를 돕기 위해 인천에서 내려온 이원희(59)씨도 위장약을 챙겼다. 이씨는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와 정성을 다해 진료를 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다만 조음이나 혈액검사, 한방 등의 진료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육관을 찾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진료를 자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심각한 고령화와 귀농·

귀촌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는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사단장 윤명하(57) 전남대병원 의료처장 겸 부원장은 “의료봉사의 수요자인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다”며 “국립대학병원이자 공공의료 거점기관인 전남대병원이 향후 풀어가야할 당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세계 문화·예술계 석학 광주 집결

문화전당, 19~22일 아시아문화포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아시아·유럽 문화, 예술계 석학과 청년전문가 등이 모인다. 광주시는 오는 19~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2016 아시아 문화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제7차 아셈문화장관회의(22일~24일)와 연계해 ‘문화, 기술 그리고 창의성 :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아시아·유럽 18개국 문화예술계 석학과 청년전문가 등 64명이 참석한다. 대표적으로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일본의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영국 찰스 랜드리(사진) 창조도시 전문가가 기조발제로 포럼의 문을 연다. 첫 주제 세션에서는 ‘문화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중국, 호주, 한국 전문가가 세계



문화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아시아에 특화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날 진행되는 두번째 주제 세션에서는 문화적 창의성과 현장 적용의 관점에서 문화중심도시 모델과 정책을 발표하고 분석한다. 2011년 이후 부활한 부대행사 ‘청년캠프’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브라질, 루마니아 등 14개국 청년 43명이 참여한다. 청년들은 현재 사전 온라인 토론을 하고 있으며 포럼 기간에는 동명동, 대인시장, 달피마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1913 송정역 시장 등 광주 곳곳을 둘러보며 논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엿본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백신 석학들은 화순에 집결

국제백신포럼 열려...道, 독일 연구소 등과 백신개발 협약

‘2016 화순국제백신포럼’이 지난 10일 부터 이틀간 화순 하니온센터에서 대학생, 제약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백신분야 연구자, 기업인, 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 퇴치와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199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징커나겔 스위스 취리히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백신 관계자 10여 명이 연사로 참여해 ‘백신과학기술의 최신 동향’, ‘백신정책과 국제공동체’ 등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질병 퇴치와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1996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징커나겔 스위스 취리히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백신 관계자 10여 명이 연사로 참여해 ‘백신과학기술의 최신 동향’, ‘백신정책과 국제공동체’ 등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기조발표자로 나선 징커나겔 교수는 에볼라·메르스 같은 치명적 감염병에 비해 에이즈·결핵 등 만성 난치병에 대한 백신 개발이 불가능한 이유를 ‘면역기억’ 개념을 통해 설명해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 제3세션 ‘백신정책과 국가공동체’에서는 저개발국 어린이의 질병 감염 실태를

알리고 치료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호소했다. 전남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주)셀트리온, (주)제넥신, 독일 프라운호퍼IZI연구소,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생물의약연구소, 화순군 등과 백신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에 따라 (주)셀트리온, (주)제넥신, 전남생물의약 연구센터는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프라운호퍼IZI 및 화순전남대병원은 면역세포 개발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전남도, 화순군과 협력하기로 했다. (주)셀트리온은 올해 4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인 ‘렘시마’가 미국 식품의약국 판매 승인을 얻은 이후 세계 제약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제넥신은 최근 중국 기업에 168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사시켰다. 1949년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ZI는 면역학, 세포 치료 및 진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노하우를 갖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롯데그룹 압수수색...신 회장 부자 비자금 조성 혐의 본격 수사

檢, 금고지기 3명 소환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임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신 회장 부자의 자금

을 총괄 관리해온 ‘금고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장부, 컴퓨터 저장장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그룹 차원의 전면적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이들에게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이 연락을

끊은 채 중직을 감취 영장 집행을 하루 미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일도 수사 비협조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는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의 핵심 의혹인 신 회장 부자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이 계열사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정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호텔롯데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롯데마트 등으로 이어지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롯데그룹 일가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靑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찰 출신 임윤수 변호사 임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검찰 출신의 임윤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전임인 유일준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지난 9일 임 변호사가 신임 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됐다”고 밝혔다.

총남 아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비서관(사법연수원 27기)은 2009년 까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김연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율촌으로 옮겼다. 앞서 지난해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최철환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6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입학원서 작성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매출서류 포함)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청구	2016. 6. 7.(화) ~ 2016. 6. 17.(금) 09:00~18:00
전형일시	2016. 6. 28.(화) 10:00~
합격자 발표	2016. 7.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신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발전지원공학
-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OCHON NATIONAL UNIVERSITY

사람찾음

성명: 박영옥(여, 70살(1946년생))

- 실종시간: 5월 2일 저녁 9시 20분경 실종
- 서동 제일파크 아파트 건물 나설때 열린 보라색 상의 잠바와 옅은초록색바지를 입고 밤색운동화를 착용.
- 신장 160cm, 왜소한 체격, 단발머리
- 전라도 말투.
- 초기 치매증상이 있음.

위 인신상의 사람을 보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금 200만원
찾는이: 정영식 (010-4649-3683)
남·서동 제일파크 909호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남구 주월동 상가 지하층~6층 380평 토지103평 계석초등학교 앞 코너 ▶ 감정이 8억 최저가 5억6천만원
- 담양읍 객사리 건물36평 토지131평 재건축가능 위치,생활권중음 ▶ 감정이 1억2천만 최저가 8천5백만원
- 광산구 월계동 6층상가건물중 6층 건물63평 토지18평 사무실상가 ▶ 감정이 2억4천 최저가 1억8천(감정가의 45%)
- 북구 매곡동 4층근린시설 대지224평 대지382평 학원,병원추천 ▶ 감정이 12억2천 최저가 8억5천만원
- 북구 임동 주택 건물27평 토지48평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예정지역. 투자최적 ▶ 최저가 9천8백만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담양군 월산면 고급전원주택 대지211평 2층 건물82평 주변환경 최고 교통편리 ▶ 감정이 5억3천 최저가 3억7천
- 북구 용봉동 3층원룸 9가구 전대생활관 인근 건물60평 토지 47평 ▶ 감정이 2억6천 최저가 1억8천2백만원
- 화순읍 삼천리 전243평 전원주택 건축가능 도로접 주변환경 양호 ▶ 최저거래가 2천3백만원
- 함평군 나산면 답312평 마을입구 도로접 건축가능 주변환경양호 ▶ 최저거래가 1천5백만원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무료 대 특강(롯데백화점)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시	2016. 6. 15(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1교시 하반기 경기 변동에 따른 부동산 시장 흐름 공개
- 2교시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및 정확한 수익 분석
 - 수익형 부동산 동이 댕이 댕이 / 돈이 되는 동지 구별법
- 3교시 재테크의 달인 김영표 대표의 성공 투자 해법 공개
 - 투자 실패 사례 분석 및 성공 사례 완벽 분석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 / 물건별 심층분석 및 일반인 투자 노하우
- 4교시 물오른 개발지 토지 투자로 영월이 잃세 받는 비법 공개
 - 미래 가치 확실한 개발지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완전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김석